

海州鄭氏 宗宅 家藏 古文獻 研究*

A Study on the Old Literature Handed Down
in the Haeju Jung's Head Family

宋 日 基(Song, Il-Gie)**

禹 貞 訓(Woo, Jung-Hoon)***

◁ 목 차 ▷

- | | |
|----------------|------------|
| 1. 緒 論 | 4. 古文書의 分析 |
| 2. 家系 및 古文獻 現況 | 5. 結 論 |
| 3. 古典籍의 分析 | <참고문헌> |

< 초 록 >

이 연구는 경기도 남양주시에 세거하고 있는 해주정씨 종택 정기탁씨 집에 전래하고 있는 고문헌을 대상으로 그 현황과 특징을 분석한 것이다. 이 집안에 전래되고 있는 고문헌은 고전적 295종 457책과 고문서 1,461점으로 파악되었다. 이 고문헌은 일시에 집서된 것이 아니라 선대로부터 대대로 전래된 사료적 가치가 높은 자료로 확인되어, 향후 해주정씨와 관련된 연구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要語: 해주정씨 종택, 정기탁, 고서, 고문서, 가장고문헌

<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old literatures handed down in the Haeju Jung's head family. This collection include 457 volumes of Oriental Classics(295 titles) and 1,461 pieces of historical manuscripts. All of them were inherited from the Haeju Jung Family's ancestors and historically valuable resources. This collection could be very useful to research further into this family.

Keyword: Haeju Jung's head family, Oriental Classics, Historical Manuscripts

* 이 논문은 2007년도 중앙대학교 연구장학기금 지원에 의한 것임.

**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igsong@cau.ac.kr)

***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석사과정(memory81@gmail.com)

접수일: 2008년 12월 4일 최초심사일: 2008년 12월 6일 심사완료일: 2008년 12월 17일

1. 緒 論

이 연구는 경기도 남양주시에 대대로 세거하고 있는 해주정씨 종택에 전래되어 온 고문헌을 대상으로 고전적(古典籍)과 고문서(古文書)의 특징 및 성격을 밝히 고자 한다.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종가나 민간에 전래된 고문헌에 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은 편이다. 이는 고문헌을 소장하고 있는 집안에서 도난을 우려하여 자료의 공개를 기피하여 접근이 용이치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근원적으로 경기도는 지리적으로 서울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 도시화가 일찍 진행되어 이주가 빈번하여 그 때마다 인위적으로 문화유산에 대한 폐기가 발생되었다. 한편으로 이 지역은 북한과 근접해 있어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극심한 피해를 입었던 까닭에 민간에 문화유산이 그다지 남아 있지 않을 것으로 짐작해 왔다. 그리하여 경기도는 다른 지방에 비해 세간의 관심에서 떨어져 있어 국가적 조사사업에서 항상 소외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지난 2000년대 초반부터 문화재청에서는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문화유산을 종합적으로 조사하는 사업을 진행하여 이미 영·호남권은 마무리 단계에 있다. 그런데 경기지역도 2006년도부터 이 사업단계에 포함되어 처음으로 국가적인 사업이 시행될 수 있었다. 필자는 이 조사 사업에 참여하여 경기도에 산재한 전적 문화유산의 조사 정리작업을 수행해 왔다. 이 조사과정은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그다지 순조로운 작업은 아니었다. 그것은 어느 기관에서도 경기도의 전적 문화유산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조차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필자는 경기도 소재 시군단위에서 발행한 마을지를 토대로 문헌조사를 실시하는 한편으로, 문화원 및 문화재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전적문화재를 소유하고 있는 민간 및 기관에 대한 소재 정보를 입수하였다. 그러나 예상한 바와 같이 종가나 서원 등 민간에서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몇 곳에 불과하였고, 또한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수량이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였다. 그나마 민간에 산재되어 있던 고문헌은 상당부분 이미 지역의 문화원이나 향토 사료관 등에 기증 또는 기탁되어 있는 실정이었다.

그나마 아직까지 집안에서 관리해 오고 있는 종가는 남양주의 해주정씨와 능원대군, 양주의 죽산안씨, 고양의 영일정씨, 수원의 함종어씨, 안산의 순천김씨와 남양홍씨, 화성의 풍양조씨와 해풍김씨, 군포의 진주유씨 종택 등이다. 이 집안은 비교적 선대로부터 대대로 전래되어 온 자료로 구성되어 있어 학술적으로 연구할 만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하겠다. 이 중 남양주 해주정씨 종택의 고문헌은 선대로부터 전해진 고전적과 고문서가 고루 분포되어 있으며, 수량 또한 다른 집안에 비해 풍부하여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현재 해주정씨 종택에 보존되어 있는 고문헌은 고전적류 295종 457책, 고문서류 1,461건에 달하고 있는데, 특히 이 집안은 조선전기 왕실과 혼인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이와 관련된 여러 선대의 자료가 가전되어 학술적 가치가 크게 주목된다. 그러나 이 집안의 자료 역시 한국전쟁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으며, 현재 종택(宗宅)에는 24세손 정기탁(鄭基鐸)씨가 해평부원군(海平府院君)을 배향한 해평사(海平祠)에 고문헌을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종택에 현존하는 고문헌을 대상으로 고전적과 고문서로 분류하여 고전적은 판종별, 주제별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고문서는 문서의 유형별로 구분하여 그 특징과 성격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2. 家系形成 및 古文獻 現況

2.1 家系形成

해주정씨(海州 鄭氏)는 해주를 본향으로 삼고 있다. 해주는 현재 북한 땅에 있는 황해도의 도청 소재지로 고조선(古朝鮮)이후 대방군(大方郡) 내미홀군 폭지(瀑池)로 불리다가 고려 태조때 해주로 개칭되었으며 목(牧)이 설치된 큰 고을이었다. 별칭으로 지성(池城), 대령(大寧), 서해(西海), 고죽(孤竹), 수양(首陽)이라 하며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에 땅이 넓고 비옥하며 인구가 많아 관서

(關西)의 큰 고을로 정씨(鄭氏), 최씨(崔氏), 오씨(吳氏) 3성이 가장 번성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해주정씨는 고려 신종 때 문과에 급제하여 전법정랑(典法正郎) 시중평장사(侍中平章事)의 관직을 지낸 정숙(鄭肅)을 시조로 하고 있다. 선계(先系)는 문헌이 전해오지 않아 상고할 수가 없고, 해주의 수양산(首陽山) 아래에서 세거(世居)했던 사족으로 고려 때에 정(鄭)씨를 사성(賜姓) 받았다고 전한다.¹⁾ 해주정씨 종택이 위치하는 남양주시 사릉지역은 그 인근에 단종의 비 정순왕후(定順王后) 송씨(宋氏)의 무덤이 있는 곳이다. 해주정씨 집안은 정순왕후를 이곳에 모시면서 남양주 지역에 정착한 것으로 보인다.

3세 정역(鄭易)은 1383(우왕 9)년 문과에 급제하고 좌정언(左正言), 사헌지평(司憲持平), 참지의정부사(參知議政府事) 등을 역임하고 1419(세종 1)년 판한성부사(判漢城府事), 의정부찬성(議政府贊成)에 이르렀다. 그는 왕실과 사돈관계를 맺게 되는데, 딸은 효령대군에게 시집을 보내고, 아들 정종(鄭宗)은 1450(세종 32)년에 문종의 딸 경혜공주(敬惠公主)와 혼인을 한다. 그 후 영양위(寧陽尉)에 책봉되었고, 단종이 즉위하자 단종의 두터운 신임을 받았다.

하지만 세조가 단종을 노산군으로 강등시켜 영월로 유배시켜 죽이고, 정종은 광주에 유배되어 사사된다. 함께 관비(官婢)가 된 경혜공주가 적소에서 아들을 낳으니 그가 해평부원군 정미수(鄭眉壽)²⁾이다. 성종 조에 정순왕후는 연미정(燕尾

1) 鄭采燮 編, 『海州鄭氏大同譜』 (서울 : 海州鄭氏大同譜編纂委員會, 1985), 51.

2) 조선 중기의 문신. 자는 기수(耆壽), 호는 우재(愚齋). 아버지는 형조참판 영양위 종(宗)이며, 어머니는 문종의 딸 경혜공주(敬惠公主)이다. 아버지의 유배지 광주(光州)에서 태어났다. 아버지가 사사(賜死)되자 어머니와 함께 서울로 소환, 세조가 길렀다. 잠저 때의 성종을 시중하다가 1473(성종 4)년 돈녕부직장·형조정랑을 지냈다. 죄인의 자손으로 임관되었다 하여 여러 차례 탄핵을 받았으나 성종의 무마로 무사하였다. 1476(성종 7)년 중부참봉(中部參奉)을 거쳐 이듬해 선전관을 지내고, 1489(성종 20)년 사헌부장령·사설시첩정·한성부서윤·인천부사 등을 지냈다. 연산군이 즉위하자 당상관으로 올라 장례원판결사에 임명되고, 1496(연산군 2)년 충청도관찰사가 되었다. 1498(연산군 4)년 동부승지·우승지·좌승지·도승지를 거쳐, 1502(연산군 8)년 공조참판·지돈녕부사·한성부판윤을 지내고, 1504(연산군 10)년 의정부참찬으로 판의금부사를 겸하였다. 1506(중종 1)년 우찬성이 되어 중종반정 때 공으로 정국공신(靖國功臣) 3등이 되고 보국숭록대부(輔國崇祿大夫)에 올랐으며, 해평부원군(海平府院君)에 봉하여졌다. 이듬해 박경(朴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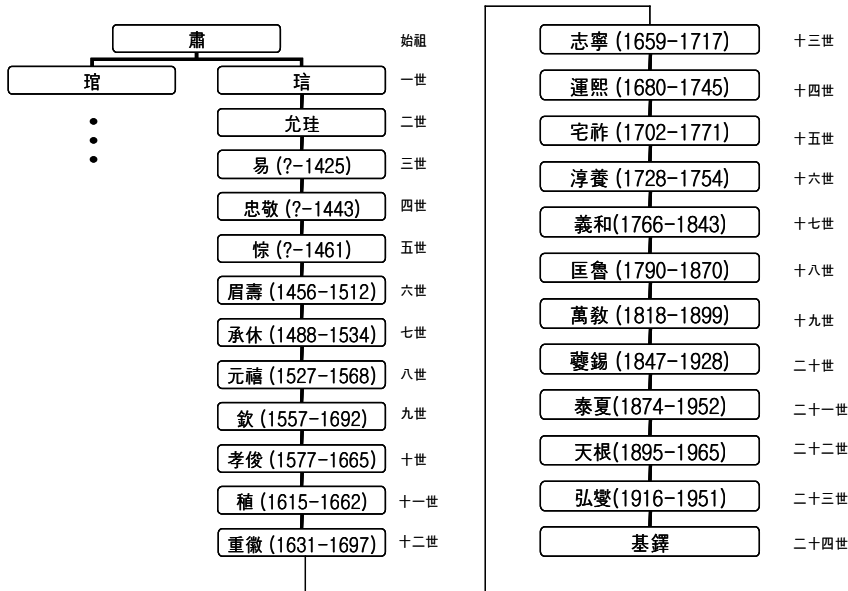
亭)³⁾으로 나가 살았는데, 임금에게 정미수를 시양자(侍養子)로 해줄 것을 청하여 모자(母子)관계가 된다. 하지만 정순왕후보다 먼저 별세를 하게 되자, 미수의 자식인 승휴(承休)에 의해 선산에 묻히게 되었는데, 이 선산이 지금이 사릉지역에 있다.

이후부터 자손들의 벼슬이 끊이지 않아 8명이 연이어 봉군(封君)⁴⁾에 임명된 당대의 명문 집안이 되었다. 해주정씨 대동보에는 이러한 행적들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 주로 17세기에 활동한 10대 정효준(鄭孝俊)⁵⁾과 11대 정식(鄭植),⁶⁾ 12대 정중휘(鄭重徽)⁷⁾시기가 가장 돋보이고 종택에도 이들의 자료가 상당량 전해지고

옥사에 연루되어 경상도 울진으로 유배되었다가 곧 풀려나 옛 관직을 돌려받고 영경연사(嶺經筵事)에 임명되었다. 법조문에 밝았으며 문장에 능하여 유고로 한중계치(閑中啓齒)가 있다. 시호는 소평(昭平)이다(上揭書, p.44).

- 3) 강화군 강화읍 월곶리에 있는 정자.
- 4) 봉군은 왕자와 공신에게 군(君)을 봉(封)하는 것으로 삼국시대(三國時代)부터 내려오는 제도이다. 종친부(宗親府), 충훈부(忠勳府), 의빈부(儀賓府)에 주어지던 종2품부터 정1품까지의 높은 품계(品階)로 왕에 위공(偉功)한 사람의 신분을 높이기 위한 명예직이었다. 종택에는棕(영양위, 영양 부원군), 眉壽(해평 부원군), 承休(해림군), 元禧(해령군), 欽(해성군), 孝俊(해풍군), 植(해원군), 重徽(해흥군)이 봉군의 직을 받았다.
- 5) 조선 중기의 문신. 자는 효우(孝于), 호는 낙만(樂晩). 돈녕부판관 흠(欽)의 아들이다. 어려서부터 시명이 높았고, 특히 변려문(辯麗文)에 뛰어났으나 과거에 여러 차례 낙방하다가 1618(광해군 10)년 늦게서야 사마시에 합격하였다. 이이첨(李爾瞻)·정인홍(鄭仁弘) 등 대북파에 의하여 인목대비(仁穆大妃) 폐모론이 대두되었을 때, 어몽렴(魚夢濂)·정택뢰(鄭澤雷) 등과 함께 극력 항소하여 이이첨 등의 처형을 주장하였다. 이로 인하여 두 사람은 유배당하였으나 공은 북관에 피신하여 화를 면하였다. 1623(인조 1)년 인조반정 이후에 서용되어 효릉참봉(孝陵參奉)·전생서 봉사(典牲晷奉事)·자여도 찰방(自如道察訪) 등을 거쳐 1652(효종 3)년 돈녕부 도정에 올랐다. 1656(효종 7)년 80세의 나이로 해풍군(海豊君)에 습봉되고 동지돈녕부사가 되었다. 그 뒤 아들 다섯이 모두 급제하여 관직에 오른 관계로 김수항(金壽恒)의 주청에 의하여 1663(현종 4)년 관돈녕부사가 되었다. 시호는 제순(齊順)이다(上揭書, pp.93-100).
- 6) 조선 후기의 문신. 자는 자고(子固). 호는 백교(白郊)라 하였다. 지돈녕부사 해풍(海豊君) 효준(孝俊)의 맏아들이며, 어머니는 이진경(李眞卿)의 딸이다. 시강원문학, 사헌부의 지평·장령을 거쳐 세자시강원 필선에 임명되었으나 부모 봉양을 위해 남양부사로 부임하였다. 질병으로 자리를 옮겨 사복시와 상의원(尙衣院)의 정(正)에 임명되었으나 1662(현종 3)년 세상을 떠났다. 맏아들 중휘가 참관에 오르자 이조판서에 추증되고 해원군(海原君)의 군호를 받았다(上揭書, pp.93-97).
- 7) 자는 신백(愼伯), 호는 둔곡(敦谷)이다. 세자시강원 필선을 지낸 해원군 식(植)의 맏아들. 1657(효종 8)년 문과에 급제하여 승문원 권지정자에 발탁되고 예문관 검열을 거쳐 성균관 전적으로 승진하였다. 1662(현종 3)년 사헌부 지평, 1665(현종 6)년 강원도 도사, 1672(현종

있다. 이 후 10대 정원희(鄭元禧)를 기점으로 후세손들에 의한 파보가 생기게 되는데 대중파(大宗派)는 9대 정흠(鄭欽)을 시작으로 현재 25대까지 전해 내려 오고 있다. 이상의 가계형성을 도식화하면 아래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해주정씨 대중파 가계도

2.2 古文獻 現況

해주정씨 종택에 전래되어 온 고문헌은 대체로 조선전기 6대인 정미수 관련 고문서자료로부터 조선후기 23대인 정홍섭(鄭弘燮)과 관련된 전적류까지 여러

13)년 세자시강원 필선을 역임하고 1675(숙종 1)년 경상도 관찰사로 나갔다가 들어와 좌승지, 도승지로 승진하고 예조참의에 임명되었으나 귀양 1678(숙종 4)년 장례원 판결사, 병조참의를 역임하고 1680(숙종 6)년 가선대부 해흥군의 군호를 받았다. 경신대출척으로 벼슬길도 막혀 집안에 머물다가 몇 년 뒤에 광주목사로 부임하였다. 곧이어 경기도 관찰사, 동지의금부사, 한성부윤 등을 역임하다 1697(숙종 23)년 별세하였다(上揭書, pp.93-95).

시기에 걸쳐 고루 분포되어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고문서자료는 12대 정중회와 15대 정택조와 관련된 교령류에 집중되어 있으며, 고전적은 주로 조선 후기에 필사된 자료가 많이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재 해주정씨 종택에 가진된 고문헌의 전체적인 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古文獻 現況

古典籍				古文書		
區分	種數	冊數	種數比率(%)	區分	種數	種數比率(%)
刊印本	88	224	30	教令類	199	14
				疏·劄·啓·狀類	38	3
				牒·關·通報類	6	0
筆寫本	207	233	70	證憑類	52	4
				明文·文記類	98	7
				書簡·通告類	806	54
計	295	457	100	置簿·記錄類	35	2
				詩文類	157	11
				其他	70	5
				計	1,461	100

위의 현황 표에 보이는 바와 같이 현재 종택에 가장되어 있는 고문헌은 전적류 295종 457책이며, 고문서류는 모두 1,461점으로 조사 집계되었다. 이 중 고전적은 간인본이 88종 224책이며, 필사본은 207종 233책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고문서는 주로 서간류와 교령류에 집중되어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리하여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고문헌의 조사현황을 토대로 고전적과 고문서로 구분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고전적은 형태적 측면과 분류적 측면에서 전적의 특징과 성격을 분석하였으며, 고문서는 윤병태가 편찬한 <한국고문서정리법>을 바탕으로 9개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내용으로 해주정씨 종택에 가장되고 있는 고문헌의 특징과 성격을 살펴보겠다.

3. 古典籍의 分析

현재 해주정씨 종택에 전래되고 있는 고전적은 총 295종 457책으로, 이를 대상으로 판종의 식별과 사분법으로 분류한 결과 세부적 현황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古典籍 現況

版種 分類	木板本		金屬活字本		木活字本		新鉛活字本		石印本		拓本		筆寫本		合計	
	種數	冊數	種數	冊數	種數	冊數	種數	冊數	種數	冊數	種數	冊數	種數	冊數	種數	冊數
經部	18	68	1	4	-	-	-	-	-	-	-	-	11	17	30	89
史部	15	25	-	-	2	10	4	14	-	-	2	2	50	56	73	107
子部	12	43	-	-	-	-	1	1	17	17	-	-	10	15	40	76
集部	9	21	-	-	-	-	2	2	2	9	-	-	136	145	152	185
合計	54	157	4	12	2	10	7	17	19	26	2	2	207	233	295	457

위의 표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해주정씨 종택에는 다양한 형태의 고전적들이 현재까지 가진되고 있는데, 필사본(207종 233책)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목판본(54종 157책), 석인본(19종 26책), 금속활자본(4종 12책), 신연활자본(7종 17책)과 목활자본(2종 10책)의 순으로 소장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그리고 동양의 전통적인 분류법인 사분법(四分法)의 유목(類目)으로 분석해 본 결과, 집부(集部)에 속하는 전적이 152종 185책으로 가장 많았고, 사부(史部)에 속하는 전적이 73종 107책, 자부(子部)에 속하는 전적이 40종 76책, 경부(經部)에 속하는 전적이 30종 89책으로 밝혀졌다. 판종별로는 필사본이, 주제별로는 집부의 전적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위에 제시한 표를 기준으로 판종별, 주제별로 나누어 좀 더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해주정씨에 가진된 전적의 특징을 살펴보겠다.

3.1 板種別 分析

종택에 보존되어 있는 고전적을 대상으로 인쇄된 간인본과 필사본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세부적 현황은 다음의 <표 3>과 같다.

<표 3> 古典籍 版種別 現況

區分	刊印本						筆寫本	合計
	木板本	金屬活字本	木活字本	新鉛活字本	石印本	拓本		
種數	54	4	2	7	19	2	207	295
冊數	157	12	10	17	26	2	233	457
種數比率(%)	18	1	1	2	6	1	71	100

3.1.1 刊印本

고전적 중 간인본은 전체 295종의 29%를 차지하는 88종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를 간행 방식에 따라 목판본, 금속활자본, 목활자본, 신연활자본, 석인본, 탁본 등으로 세분하여 각 판본의 특징을 살펴보겠다.

1) 木板本

목판본은 한국본 38종 84책⁸⁾과 중국본 16종 73책⁹⁾을 포함하여 총 54종 157책으로 전체 종수의 약 18%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가운데 대표적인 서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어정규장전운(御定奎章全韻)」은 1890(고종 27)년에 정하석(鄭夏錫)(1848-

- 8) 우리나라에서 목판으로 간행된 판본으로 <簡牘會粹, 經書類抄, 古文百選, 句解南華真經, 唐宋八子百選, 唐詩品彙, 東國文獻錄, 孟子諺解, 文字類輯, 史記英選, 事書類聚抄, 事文抄, 史要聚選, 史漢一統, 喪禮備要, 少微通鑑節要A, 少微通鑑節要B, 少微通鑑節要C, 詩傳大全, 新編彙語, 十九史略, 十九史略通攷, 御定奎章全韻A, 御定奎章全韻B, 御定奎章全韻C, 御定奎章全韻D, 御定詩韻, 儒胥必知, 莊陵志, 剪燈新話句解, 全韻玉篇, 俎豆錄, 周易諺解, 周易傳義大全, 千歲歷, 千字文, 草簡牘, 海州鄭氏族譜> 등 38종이 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9) 중국에서 목판으로 간행된 판본으로 <唐宋八家文讀本, 大學衍義補, 讀書紀數略, 孟子書, 少微家塾點校附音通鑑節要A, 少微家塾點校附音通鑑節要B, 詩, 新編古今事書類聚後集, 禮記, 韻府群玉, 資治前編歷朝紀政綱目, 莊子郭註, 諸子品節, 重刻黃文節山谷先生文集, 春秋> 등 16종으로 파악 되었다.

1898) 에게 하사한 내사본이다.¹⁰⁾ 정하석은 12대 중만(重萬)의 8대손으로 성균진사(成均進士)를 지냈다. 「어정규장전운」은 정조가 규장각의 제신(諸臣)에게 명하여 편찬한 운서(韻書)로 종택에는 이를 포함하여 4종이 있다.

「당송팔자백선(唐宋八子百選)」은 가진된 목판본 중 유일하게 정유자본을 번각한 복각본으로 6권 2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선 후기 정조가 당송팔대가(唐宋八大家)의 글을 뽑아 간행한 책으로 1780(정조 4)년 100편의 글을 선정하여 먼저 정유자본으로 간행하고 이어 규장각에서 목판으로 복각 간행한 사실이 있다. 권수면에는 「규장지보(奎章之寶)」의 내사인이 선명하게 찍혀 있다.

「장릉지(莊陵誌)」는 1698(숙종 24)년에 노산군(魯山君)을 단종으로 높인 후 그와 관련된 사적(史籍) 및 복위(復位)의 과정을 기록한 책으로 권1-2가 빠진 2권 1책만 전해지고 있다. 「사요취선(史要聚選)」은 권이생(權以生)이 중국 상고 시대로부터 명대에 이르기까지의 사실(史實) 가운데 요람(要覽)이 되는 부분을 뽑아 엮은 책이다.

2) 金屬活字本

금속활자본은 「대산집(對山集)」, 「두율분운(杜律分韻)」, 「맹자집주대전(孟子集註大全)」, 「어정두륙천선(御定杜陸千選)」 등 모두 4종 12책으로 전체 종수의 약 1%을 차지하여 그리 수량은 많지 않은 편이다. 활자별로는 전사자본(全史字本), 정리자본(整里字本), 정유자본(丁酉字本)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전사자본인 「대산집」은 조선시대 대산(對山) 강진(姜潛)(1807-1858)이 저술한 책으로 강진의 시집(詩集)을 엮은 책이다. 조두순(趙斗淳), 윤정현(尹定鉉), 김학성(金學性), 홍순목(洪淳穆), 박승휘(朴承輝) 등이 서문을 쓰고 있고, 조녕하(趙寧夏), 조성하(趙成夏) 등이 발문을 쓰고 있다. 4권 2책으로 구성되어 있고, 표제면(標題面)에 무진간행(戊辰刊行)이라 표기하고 있어 1858(고종 5)년에 간행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전사자본은 순조의 생모인 수빈 박씨(綏嬪 朴氏)의

10) 내면지에는 “光緒十六年(1890)四月日 儒武應製賦次上 幼學 鄭夏錫 內賜 奎章全韻一件 命除謝恩”라는 내사기가 기록되어 있다.

오빠 박종경(朴宗慶)이 외척으로서 권세를 누리고 있던 무렵, 재물을 모아 1816(순조 16)년에 청나라 취진판(聚珍板)의 글자를 자본으로 20만 자를 주성한 동활자가 ‘全史字’이다. 이 글자는 특히 인서체의 활자 모양이 신연활자와 같이 균정하고 크기도 적당하고 주조가 정교하여 민간에서 널리 애용되었기 때문에 그 인본이 비교적 많이 전래되고 있다.¹¹⁾

둘째, 정리자본인 「두울분운」은 정조의 명에 의해 1798(정조 22)년 간행된 책으로 두보의 읍시 77수를 실은 것이다. 간행경위는 권말에 기록되었는데, 규장각(奎章閣)이 관할한 이문원의 고문관(考文館)에서 맡아 편찬되었다고 하였다.¹²⁾ 5권 2책으로 구성되어 있고, 표제면에 무오활인(戊午活人)이라 표기하고 있어 1798(정조 22)년에 간행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정리자본은 목활자인 생생자(生生字)를 바탕글자로 1795(정조 19)년에 주조하기 시작하여 이듬해인 1796(정조 20)년에 완성시킨 큰 자 16만 자와 작은 자 14만 자의 동활자를 ‘정리자(整理字)’라 이르며 주조한 해의 간지를 붙여 ‘을묘자(乙卯字)’라고 일컫기도 한다. 이 활자의 큰 자는 글자체가 넓적하고 글자 획이 굵은 인서체이며, 작은 자는 오늘날의 인서체와 같이 정교하고 해정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¹³⁾

셋째, 정유자본은 「맹자집주대전」과 「어정두륙천선」 등으로, 「맹자집주대전」은 「맹자」에 대한 주석을 단 책으로 정조 연간에 간행된 책이다. 완질본은 14권 7책인데 권1-6이 결질된 8권 4책으로 완질본을 갖추지는 못하고 있다. 책마다 서미(書眉)에 이두가 표기되어 있는 특징이 있다. 「어정두륙천선」은 정조의 명에 의해 1799(정조 23)년에 간행된 것으로 당의 두보와 송의 육유(陸游)의 근체율시(近體律詩) 천 수를 뽑아 모은 책이다. 8권 4책으로 완질본을 갖추고 있다. 정유자본은 1777(정조 1)년에 평양감사 서명웅이 갑인자를 자본으로 하여 주성하여 내각에 소장했던 활자로 글자 획이 선명하고 해정한 것이 특징으로 많은 서적을 간인했다.

11) 천혜봉, 「한국금속활자본」 (서울: 범우사, 1993), 157-161.

12) 규장각 한국학 중앙연구원, <<http://e-kyujanggak.snu.ac.kr/>> [cited 2008.11.11].

13) 천혜봉(1993), 142-148.

3) 木活字本

목활자본은 「동학지(東鶴誌)」와 「해주정씨족보(海州鄭氏族譜)」 등으로 2종 10책으로 전체 종수의 약 1%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동학지」는 단종대왕과 관련되어 있는 공주(公州) 동학사(東鶴寺) 관계 여러 문헌자료를 이범욱(李範彧)과 송주헌(宋柱憲)이 편집한 것으로 목활자로 간행한 책이다. 동학사는 현재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反浦面)에 위치한 사찰로 「범례(凡例)」를 보면, 「동학지」라는 명칭은 「화양지(華陽誌)」를 따라 정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인용서적의 출처는 「장릉지(莊陵誌)」에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기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다. 이 책은 상편, 중편, 하편으로 크게 구성되어 있다. 각 편의 목차를 살펴보면, 상편은 단종대왕사실(端宗大王事實), 중편은 삼은각(三隱閣), 하편은 동학사(東鶴寺) 관련사항이 중심으로 서술되어 있다. 단종대왕 관련 사실은 「장릉지」를 참조하였다고 범례에 기록되어 있다. 삼은각은 포은 정몽주, 목은 이색, 야은 길재를 추모하기 위해 세운 건물이다.

「해주정씨족보(海州鄭氏族譜)」는 8권 9책으로, 권수편은 금속활자인 전사자로 간인되어 있다. 본서명은 「사간해주정씨족보(四刊海州鄭氏族譜)」로 기술되어 있어 네 번째 간행된 것임을 알 수 있다. 형식은 7段으로 구성되어 있고, 권1의 면지(面紙)에 1~8권까지의 색인목록(索引目錄)이 목서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4) 新鉛活字本

근대 서양의 인쇄기술의 영향을 받아 도입된 기계로 인쇄된 신연활자본은 오간해주정씨족보(五刊海州鄭氏族譜), 「동명음사시집(東明吟社詩集)」 등 총 7종 17책으로 전체 종수의 약 2%를 차지하고 있다.¹⁴⁾

「오간해주정씨족보」는 2종이 있는데, 면지에 「議官泰夏」라 목서되어 있다. 또한 서문에서도 참여하고 있어 21대 태하(泰夏)의 소장본임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가장 이른 시기의 것으로는 1911년에 간행된 중국본 「대청선통사년

14) 그 외에 〈五刊海州鄭氏族譜, 五刊海州鄭氏族譜, 東明吟社詩集, 海東竹枝, 六刊海州鄭氏寧陽尉派譜, 增補大東紀年, 大清宣統四年歲次壬子時憲書〉 등이 있다.

세차임자시헌서(大清宣統四年歲次壬子時憲書)」이다. 시헌서는 서양 신부 탕약망(湯若望 Adam Schall) 등이 서양역법을 기초하여 편찬한 청(淸)의 역법이다. 신연활자본 가운데 유일한 중국본이다.

5) 石印本, 拓本

석인본은 물과 기름의 반발성을 이용하여 판판한 돌의 표면 위에 비누와 지방을 섞은 재료로 글자와 그림 따위를 제판(製版)하여 찍어내는 방법이다. 간인본 중 목판본 다음으로 많은 수량인 19종 26책으로 전체 종수의 약 6%를 차지하고 있다.¹⁵⁾

총 19종의 자료 중 2종의 자료를 제외하고 17종이 천문·산법류의 자료로서, 일제시기 조선총독부에서 간행된 「조선민력(朝鮮民曆)」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민력(民曆)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에서 음력을 위주로 하여 편찬한 책력(冊曆)이다. 1913년에 간행된 「대정삼년조선민력(大正三年朝鮮民曆)」이 가장 이른 시기의 자료이고, 1931년에 간행된 「소화육년조선민력(昭和六年朝鮮民曆)」이 가장 늦은 시기의 자료이다.

탁본은 「비문첩(碑文帖) 과 일반 탁본등 2종으로 전체 종수의 약 1%를 차지하고 있다. 비문첩 은 1689(숙종 15)년 12대 중만이 아버지 식(植)의 비문을 비석에 새긴 것을 탁본한 첩(帖)이다.

3.1.2 筆寫本

필사본 가운데 대표적인 전적으로 집안에서 작성된 가장목록(家藏目錄) 여러 책이 전래되고 있다. 또한 「고문초(古文抄)」, 「동시초(東詩抄)」 등 모두 207종

15) 석인본에는 〈大正十年朝鮮民曆, 大正十一年朝鮮民曆A, 大正十一年朝鮮民曆B, 大正十二年朝鮮民曆, 大正十三年朝鮮民曆, 大正十五年朝鮮民曆, 大正十六年朝鮮民曆, 大正三年朝鮮民曆, 大正四年朝鮮民曆, 大正七年朝鮮民曆, 西遊記, 昭和十四年略曆, 昭和十五年略曆, 昭和三年朝鮮民曆, 昭和四年朝鮮民曆, 昭和五年朝鮮民曆, 昭和六年朝鮮民曆, 素華集, 中華民國八年曆書〉 등 19종이 있다.

233책으로, 소장문헌 중 가장 많은 수량으로 전체 종수의 약 71%를 차지하고 있다.

해주정씨 종택에 가전된 필사본의 가장 큰 특징은 고시(古詩), 고문(古文), 당시(唐詩), 한시(漢詩), 필부(厥賦) 등 시나 부 형태의 서적이 많은 점이다. 이러한 시초(詩抄)형태의 책들은 대부분 선대로부터 시를 습작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중요한 부분에 주목으로 표시를 한 흔적이 다수 보인다.

종택에는 「사서강의(四書講義)」, 「맹자(孟子)」, 「명심보감(明心寶鑑)」, 「효경대의(孝經大義)」와 같이 간인본을 필사하는 형태의 책들도 다수 전하고 있다. 6권 6책의 「남화경(南華經)」, 10권 6책의 「서전대전주해(書傳大全註解)」와 같이 많은 양을 차지하는 필사본도 있다. 5권 5책으로 구성된 「해주정씨가승(海州鄭氏家乘)」은 간단한 가계를 기록한 책으로서 서문¹⁶⁾으로 보아 15대 정혁조(鄭奕祚)(1729-1787)가 1784(정조 8)년에 필사한 것으로 보인다.

필사자료로 주목되는 가장목록(家藏目錄)은 8종이 전해지고 있는데, 특징인에 의해 집안의 고전적을 대상으로 작성한 것이다. 표제를 살펴보면 목록 5종, 부목(賦目) 2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두 44종의 책을 대상으로 수록하고 있고 총 5,818首의 시가 실려 있다. 목록은 필사본 중 시와 부(賦)를 모아놓은 서적을 중심으로 오늘날의 목차와 같이 서명과 시의 제목을 함께 기록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목록에 수록된 서명, 부(賦)의 제목과 현존하는 전적을 비교한 결과, 모두 23종이 일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들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4>와 같다.

「목록1」은 「용일(庸一)」, 「뇌제(雷題)」, 「청운(靑雲)」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용일」에 수록된 목록만이 필사본 「의교(疑橋)」와 일치하고 있다. 「뇌제」와 「청운」은 산실된 것으로 보이며, 모두 162수를 싣고 있다. 「목록2」에서는 「직언(直言)」을 제외한 「정선(精選)」과 「연규총(蓮桂叢)」이 일치하고 있다. 책의 말미에 모두 531수가 실려 있다는 목서가 보인다.

16) 上之八年五月上澣(1784)後孫進士 鄭奕祚 謹序

<표 4> 목록 수록본과 현존 필사본과의 대비

	수록 서명	대조유무	비고		수록 서명	대조유무	비고
目錄1 (162首)	[庸一] ¹⁷⁾	○	疑橋에 포함	目錄5 (551首)	書龍	○	書龍A
	雷題	×			香葩	○	香葩
	靑雲	×			衆芳	×	
目錄2 (531首)	精選, 1-2	○	精選B, 1-2		論語	×	
	蓮桂叢, 1-3	○	蓮桂叢B, 1-3		中庸	×	
	直言	×			大學	×	
目錄3 (547首)	龍門	○	龍門		孟子	×	
	雲見	○	雲見		小學	×	
	鴻達	○	鴻達		科私	×	
	玉振	○	玉振A		大闡	×	
	驚人	○	驚人		上章	×	
	必得	○	必得		詩-詩龍	○	詩龍A
	應制	○	香餌에 應制 합철		書-書鳳	○	書鳳
	香餌	○	香餌		易-花叢	○	花叢
	桂枝	○	桂枝B		禮	○	
明珠	○	明珠	論	○			
目錄4 (1,356首)	詩, 甲-丙	일부	詩B, 丙	孟	○		
	書, 甲-丙	일부	書, 乙 書, 丙	庸	○		
	易, 甲	○	易, 甲	大學	○		
	目錄5 (1,434首)	賦目 (1,434首)	外賦目 (1,237)	小學	○		
金精				○	金精		
玉輝				○	玉輝		
珠聯				×			
禮, 甲-戊	일부	禮, 丙-丁	外家書題	×			

목록3 은 현전도서의 내용과 모두 일치하였고 547수를 신고 있다. 그 중 현존하는 책 「응제(應制)」는 「향이(香餌)」에 합철이 되어있었다. 「목록4」는 형태적인 면에서 전체크기가 조금 크고 표제도 ‘의목록(義目錄)’으로 표기되어 있다. 시의 병(丙)편과 서의 을(乙), 병(丙)편, 역(易)의 갑(甲)편,례(禮)의 병(丙)-정(丁)편 등 일부분의 책들만 있었다. 모두 1,356수가 전해지고 있는데 「시경(詩經)」, 「서경(書經)」, 「역경(易經)」, 「예기(禮記)」 등의 각 편에서 느낀 바를 부(賦)로

17) 다른 목록들은 보통 서명을 앞에 적고 목차를 기록하였지만 이 경우 대상으로 삼은 책의 서명이 없어서 목록의 첫 부분에 표기된 명칭을 서명으로 삼았다.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목록5」는 「서룡(書龍)」과 「향과(香葩)」를 제외한 다른 책들은 찾을 수 없었고, 모두 551수가 전해지고 있다.

「부목(賦目)」은 역에서 소학까지의 내용이 「화총(花叢)」이라는 한 책에 실려 있는 특징을 볼 수 있다. 모두 1,434수가 실려 있다. 「외부목(外賦目)」은 크게 「통사(通史)」와 「외가서제(外家書題)」로 나뉘어 있고 「통사」 안에서 「금정(金精)」의 「金」, 「옥휘(玉輝)」의 「玉」과 같은 형식으로 앞부분의 글자와 순서를 표기하고 있다. 「통사」에는 「금정」과 「옥휘」가 일치하고 모두 1,237수가 실려 있다.

이상 해주정씨 종택에 가진 전적을 관종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해주정씨 종택에는 목판본, 금속활자본, 목활자본, 신연활자본, 석인본, 탁본, 필사본 등 총 295종 457책이 가진되고 있었다.

둘째, 각 판본별 종수를 살펴보면 필사본 207종, 목판본 54종, 석인본 19종, 신연활자본 7종, 금속활자본 4종, 목활자본 2종, 탁본 2종의 순서로 필사본과 목판본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셋째, 해주정씨 종택에는 주로 간인본을 수집하는 형태가 아닌 필사본의 형태로 전적이 가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필사본에 관한 목록을 만들어 효율적인 학습을 행하였다. 이는 오늘날의 목록과 같이 검색의 용이성에 주안점을 둔 것이 아니라 정리와 관리의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목록은 8종으로 이루어졌고 모두 5,818수가 실려있다. 목록과 현전하는 전적을 비교하여 보니 모두 23종의 서적이 일치하였다.

3.2 主題別 分析

이 절에서는 전적의 주제별 분석을 통해 가장 고전적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고전적의 분류는 규장각한국학중앙연구원의 분류체계에 따라 경부(經部)·사부(史部)·자부(子部)·집부(集部)의 사분법(四分法)을 적용하여 분류하였고, 각부(各部) 아래에 세분류(細分類)까지만 전개를 하였다. 고전적의 주제

별 분류 현황은 아래의 <표 5>와 같다.

<표 5> 古典籍의 主題別 現況

	經部	史部	子部	集部	合計
種數	30	73	40	152	295
冊數	89	107	76	185	457
種數比率(%)	10	24	14	52	100

3.2.1 經部 典籍

경부에 속하는 전적은 사서류(四書類), 서류(書類), 소설류(小學類), 시류(詩類), 역류(易類), 예류(禮類), 춘추류(春秋類), 효경류(孝經類) 등으로 총 30종 89책으로 전체장서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다. 그 중 사서류가 8종 14책, 서류 2종 9책, 소학류 7종 8책, 시류 4종 10책, 역류 3종 18책, 예류 3종 12책, 춘추류 2종 17책, 마지막으로 효경류가 1종 1책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판종별로 살펴보면 목판본 18종 68책, 금속활자본 1종 4책, 필사본 11종 17책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6> 經部の 典籍

板本 細分類	木板本		金屬活字本		木活字本		新鉛活字本		石印本		拓本		筆寫本		合計	
	種數	冊數	種數	冊數	種數	冊數	種數	冊數	種數	冊數	種數	冊數	種數	冊數	種數	冊數
四書類	3	6	1	4									4	4	8	14
書類	1	3											1	6	2	9
小學類	7	8													7	8
詩類	2	8											2	2	4	10
易類	2	17											1	1	3	18
禮類	2	11											1	1	3	12
春秋類	1	15											1	2	2	17
孝經類													1	1	1	1
合計	18	68	1	4									11	17	30	89

위 <표 6>에서 알 수 있듯이, 경부에 속하는 주제 가운데 사서류와 소학류에

관련된 서적이 주종을 이루고 있었고, 시·서·예·역·춘추·효경류 분야의 순으로 전적들을 소장하고 있었다. 대표적인 책으로는 「사서강의」, 「어정규장전운(御定奎章全韻)」, 「효경대의」 등이 있다. 판본별로는 목판본과 필사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목판본은 소학류와 사서류 관련서적에, 필사본은 사서류와 서류 관련서적에 집중되고 있었다.

3.2.2 史部 典籍

사부에 속하는 전적은 금석류(金石類), 별사류(別史類), 보계류(譜系類), 서지류(書誌類), 잡사류(雜史類), 전기류(傳記類), 정법류(政法類), 조령·주의류(詔令·奏議類), 지리류(地理類), 초사류(抄史類), 편년류(編年類) 등으로 총 73종 107책으로 전체장서의 약 24%를 차지하고 있다. 그 중 금석류가 2종 2책, 별사류 4종 7책, 보계류 10종 29책, 서지류 8종 8책, 잡사류 4종 4책, 전기류 26종 31책, 정법류 1종 1책, 조령·주의류 1종 1책, 지리류 7종 7책, 초사류 3종 7책, 마지막으로 편년류가 7종 10책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판본별로 살펴보면 목판본 15종 25책, 목활자본 2종 10책, 신연활자본 4종 14책, 탁본 2종 2책, 필사본 50종 56책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7> 史部の 典籍

板本 細分類	木板本		金屬活字本		木活字本		新鉛活字本		石印本		拓本		筆寫本		合計	
	種數	冊數	種數	冊數	種數	冊數	種數	冊數	種數	冊數	種數	冊數	種數	冊數	種數	冊數
金石類											2	2			2	2
別史類	3	6											1	1	4	7
譜系類	1	2			1	9	3	13					5	5	10	29
書誌類													8	8	8	8
雜史類	1	1											3	3	4	4
傳記類	2	3											24	28	26	31
政法類													1	1	1	1
詔令·奏議類													1	1	1	1
地理類					1	1							6	6	7	7
抄史類	2	4											1	3	3	7
編年類	6	9					1	1							7	10
合計	15	25			2	10	4	14			2	2	50	56	73	107

앞의 <표 7>에서 알 수 있듯이, 사부에 속하는 주제 가운데 전기류와 보계류에 관련된 서적이 주종을 이루고 있었고, 서지류, 편년류, 지리류, 별사류, 잡사류, 초사류, 금석류, 정법류와 조령·주의류 분야의 전적들을 소장하고 있었다. 대표적인 책으로는 「사요취선」, 「해주정씨족보」, 「조객록(吊客錄)」 등이 있다. 판본별로는 목판본과 필사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목판본은 편년류 관련서적에, 필사본은 전기류 관련서적에 집중되고 있었다.

3.2.3 子部 典籍

사부에 속하는 전적은 도가류(道家類), 유서류(類書類), 술수류(術數類), 유가류(儒家類), 잡가류(雜家類), 천문·산법류(天文·算法類), 총자류(總子類) 등으로 총 40종 76책으로 전채장서의 약 14%를 차지하고 있다. 그 중 도가류가 5종 22책, 유서류 8종 27책, 술수류 3종 3책, 유가류 3종 3책, 잡가류 1종 1책, 천문·산법류 19종 19책, 마지막으로 총자류가 1종 1책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판본별로 살펴보면 목판본 15종 46책, 신연활자본 1종 1책, 석인본 17종 17책, 필사본 7종 12책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8> 子部の 典籍

板本 細分類	木板本		金屬活字本		木活字本		新鉛活字本		石印本		拓本		筆寫本		合計	
	種數	冊數	種數	冊數	種數	冊數	種數	冊數	種數	冊數	種數	冊數	種數	冊數	種數	冊數
道家類	2	14											3	8	5	22
類書類	8	27													8	27
術數類	3	3													3	3
儒家類													3	3	3	3
雜家類													1	1	1	1
天文· 算法類	1	1					1	1	17	17					19	19
總子類	1	1													1	1
合計	15	46					1	1	17	17			7	12	40	76

앞의 <표 8>에서 알 수 있듯이, 자부에 속하는 주제 가운데 천문·산법류와 유서류에 관련된 서적이 주종을 이루고 있었고, 술수류, 유가류, 잡가류, 총자류 분야의 전적들을 소장하고 있었다. 대표적인 책으로는 「대정십오년조선민력(大正十五年朝鮮民曆)」과 같은 「조선민력(朝鮮民曆)」, 「사문유취초(事文類聚抄)」 등이 있었다. 판본별로는 목판본과 석인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목판본은 유서류 관련서적에, 석인본은 천문·산법류 관련서적에 집중되고 있었다. 특히 석인본의 경우는 2종을 제외하고 모두 천문·산법류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었다.

3.2.4 集部 典籍

집부에 속하는 전적은 별집류(別集類), 서간류(書簡類), 소설류(小說類), 수필류(隨筆類), 잡저류(雜著類), 총집류(總集類) 등으로 총 152종 185책으로 전체장서의 약 52%를 차지하고 있어 가장 많은 수량을 보이고 있다. 그 중 별집류가 8종 19책, 서간류 6종 6책, 소설류 3종 11책, 수필류 1종 1책, 잡저류 8종 8책, 마지막으로 총집류가 126종 140책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판본별로 살펴보면 목판본 9종 21책, 금속활자본 3종 8책, 신연활자본 2종 2책, 석인본 2종 9책, 필사본 136종 145책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9> 集部の 典籍

板本 細分類	木板本		金屬活字本		木活字本		新鉛活字本		石印本		拓本		筆寫本		合計	
	種數	冊數	種數	冊數	種數	冊數	種數	冊數	種數	冊數	種數	冊數	種數	冊數	種數	冊數
別集類	1	10	2	4			2	2					3	3	8	19
書簡類	2	2											4	4	6	6
小說類	1	2							1	8			1	1	3	11
隨筆類													1	1	1	1
雜著類													8	8	8	8
總集類	5	7	1	4					1	1			119	128	126	140
合計	9	21	3	8			2	2	2	9			136	145	152	185

앞의 <표 9>에서 알 수 있듯이, 집부에 속하는 주제 가운데 총집류에 관련된 서적이 주종을 이루고 있었고, 별집류, 잡저류, 서간류, 소설류, 수필류 분야의 전적들을 소장하고 있었다. 대표적인 책으로는 「고시초(古詩抄)」, 「당시초(唐詩抄)」, 「대산집(對山集)」 등이 있다. 판본별로는 필사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주로 총집류 관련서적에 집중되고 있었다. 이것이 가전된 문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총집류에는 시, 부, 초 등의 필사본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가전되어온 문헌의 특징을 단적으로 보이고 있다.

이상 해주정씨에 가전된 전적의 주제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각 주제별로는 집부 152종, 사부 72종, 자부 40종, 경부 30종 등으로 집부 전적이 절반이상으로 가장 많은 수량을 차지하고 있었다.

둘째,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경부는 사서류와 소학류, 사부는 전기류와 보계류, 자부는 천문·산법류와 유서류, 집부는 총집류에 집중되는 특징을 보였다.

셋째, 판본별로 분석해 보면, 경부에는 목판본과 필사본이 주종을 이루고 있었다. 목판본은 사서류와 소학류에, 필사본은 사서류와 시류에 집중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었다. 사부에는 목판본과 필사본이 주종을 이루고 있었는데 목판본은 편년류와 별사류에, 필사본은 전기류와 서지류에 집중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었다. 자부에는 목판본과 석인본이 주종을 이루고 있었는데 목판본은 유서류와 술수류에 석인본은 천문·산법류에 집중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었다. 집부에는 단연 필사본이 주종을 이루고 있었는데, 특히 총집류에 집중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었다.

4. 古文書의 分析

해주정씨 종택의 고문서는 1,461건으로 상당량의 자료가 현전하고 있다. 이를 윤병태의 분류체계를 바탕으로 구분해 보면 크게 9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¹⁸⁾

이 중 가장 많은 유형은 서간·통고류(書簡·通告類)이며 806건으로 전체의 약 54%를 차지하고 있는데, 세부적 현황은 아래와 같다.

<표 10> 古文書의 現況

類 型	種數	比率(%)	類 型	種數	比率(%)
教令類	199	14	書簡·通告類	806	54
疏·笏·啓·狀類	38	3	置簿·記錄類	35	2
牒·關·通報類	6	0	詩文類	157	11
證憑類	52	4	其他	70	5
明文·文記類	98	7	計	1,461	100

위와 같은 고문서의 전체적 현황을 바탕으로 이 장에서는 각각의 고문서를 유형별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4.1 教令類

교령류(教令類)는 해당 가문이나 선조의 활동을 나타내는 자료이므로, 대다수의 가문에서 많이 발견되는 자료 중의 하나이다. 해주정씨 집안은 누대에 걸쳐 왕실과의 교유를 통해 관직에 진출한 이가 많았고, 그 품계 또한 다양하였다. 유형별 세부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11> 教令類의 現況

區 分		種 數	區 分	種 數
教 旨	告身	126	教牒	23
	紅牌	2	教書	2
	白牌	6	諭書	2
	賜謚	6	有旨	4
	追贈	20	帖	3
	賜牌	1	賜送記	1
	祿牌	3	計	199

18) 尹炳泰, 『韓國古文書整理法』 (城南: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94), 58-70.

종택에 가진 교령류는 모두 199건으로 전체수량의 약 14%를 차지하고 있다. 교지(敎旨)는 왕이 신하에게 관직(官職), 관작(官爵), 시호(詩號), 자격(資格), 토지(土地), 노비(奴婢) 등을 하사하면서 그 증표로 내려주는 문서이다. 고려시대에는 왕명(王命), 조선초기에는 왕지(王旨) 혹은 관교(官敎), 그리고 대한제국시대에는 칙명(勅命)이라고 하였다. 교지를 조금 더 구분해 보면 4품 이상의 관료에게 관직·관작을 내리는 고신(告身), 문무과 급제자에게 내리는 홍패(紅牌), 생원·진사시의 합격자에게 내리는 백패(白牌), 죽은 사람의 관작을 올려주는 추증교지(追贈敎旨), 향리의 면역(免役)을 인정하는 사패(賜牌), 죽은 신하에게 시호(諡號)를 내려주는 사시교지(賜諡敎旨) 등이 있다. 인(印)은 경국대전 반포를 전후해서 이후로 「施命之寶」를 찍었으며, 홍패·백패에는 「科擧之寶」를 안보(安寶)하였다.

고신 중에 인조 22(1644)년 10대 정호준을 “通訓大夫行 自如道察訪”으로 임명한 것이 가장 이른 시기이고, 1906년에 20대 정기석이 궁내부에서 사릉 참봉으로 임명받은 관교가 가장 나중의 것이다. 인물별로는 정중휘가 48건으로 가장 많고 정식 13건, 정운희 11건의 순으로 정중휘의 자료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홍패와 백패는 과거(科擧) 합격자에게 내려준 합격증서이다. 홍패와 백패라는 말은 이 합격증서의 색깔에서 유래되었는데 종택에는 홍패 2건, 백패 6건이 전해 오고 있다.

교지 중에 가장 이른 시기에 발급된 사패교지는 1508(중종 3)년에 秉忠奮義 靖國功臣輔國崇祿大夫 海平府院君 鄭眉壽에게 노비와 전답 하사한다는 문서이다.

녹패(祿牌)는 이조(吏曹)와 병조(兵曹)에서 왕명을 받아 종친(宗親), 문무관리(文武官吏)에게 녹과(祿科)를 정하여 발급한 녹봉증서(祿俸證書)이다. 조선전기에는 녹봉을 1년에 4차례 지급하였으나 조선후기에는 매월 지급하였다. 정중휘, 정지녕과 정택조에게 1688(숙종 14)년, 1700(숙종 26)년, 1752(영조 28)년에 각각 지급한 녹패 3종이 있다.

교첩 19)은 5품 이하의 고신식으로 문·무관원에게 대간(臺諫)의 서경(書經)²⁰⁾

을 거쳐 吏曹·兵曹에서 왕명을 받들어 관작·관직을 내리는 문서형태로 연호 위에는 발급하는 조(曹)의 관인(官印)인 이조지인(吏曹之印)이나 병조지인(兵曹之印)을 날인하였다. 종택에는 총 23건이 전해지고 있는데 1657(효종 8)년 정중휘에게 병조에서 발급한 문서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조에서 발급된 것이다. 수급자를 살펴보면 정식이 7건, 정중휘 8건, 정지녕 2건, 정택조가 3건을 차지하였고 나머지는 각각 1건씩 전해지고 있다.

교서(敎書)는 국왕이 내리는 훈유문(訓諭文)이나 명령서(命書) 혹은 선포문(宣布文) 등을 말한다. 교서를 반포하는 경우는 매우 다양하였다. 예컨대 즉위하여 자신의 시정 방침을 천명하는 즉위교서(卽位敎書), 국난에 직면하여 직언(直言)을 널리 구하는 구언교서(求言敎書), 공신을 책봉하는 공신녹훈교서(功臣錄勳敎書), 관리를 임명하고 소임을 다 하도록 훈유(訓諭)하는 사명훈유교서(使命訓諭敎書) 등이다. 종택에는 총 2건이 전해지는데 모두 정중휘에게 발급한 사명훈유교서²¹⁾에 해당한다.

유서(諭書)는 국왕이 관제사, 절도사, 방어사 등 군사권을 가진 관리가 부임할 때, 왕과 해당관원만이 아는 밀부(密符)를 내리면서 함께 발급한 명령서이다. 앞서 설명한 교서와 같은 날에 발급된 유서 2건이 있다.

유지(有旨)는 국왕의 명령을 승정원의 담당 승지가 직접 받아 그 내용을 자신이 작성하여 피명자(被命者)에게 전달하는 중요한 문서이다. 유지는 문서의 오른쪽 표면에 피명자의 직함과 이름을 쓰고 개절(開折)이라 하였다. 종택에는 정식에게 1건, 정중휘에게 3건 등 총 4건이 전해지고 있다.

첩(帖)은 중앙의 관아에서 7품 이하 관원을 임명할 때에, 혹은 지방의 수령이 제관(祭官), 품관(品官), 향리(鄕吏) 등을 임명[差定]할 때에 사용하던 문서이다.

-
- 19) 교첩, 고신, 관교(官敎)등의 용어 명칭이 현재 논란이 되고 있지만, 본고에서는 한국고문서 정리법에 의거하여 문무관 5품 이하의 고신식(告身式)을 교첩이라 칭한다.
- 20) 당하관으로 처음 임명하라는 왕명이 있으면 이조에서는 被任者의 身元을 조사하여, 그 興否를 공동 署名하여 同意를 表함을 말한다.
- 21) 정중휘를 1675(숙종 1)년에 慶尙道觀察使兼 兵馬水軍節度使巡察使 大丘府使에 임명하면서 내린 것과 1694(숙종 20)년에 京畿觀察使兼 兵馬水軍節度使巡察使 開城府留守江華府留守에 임명한 것 2건이 전해지고 있다.

종택에는 1651(효종 2)년 정식, 1657(효종 8)년 정중휘, 1879(고종 17)년에 정만교가 받은 3건이 전해진다.²²⁾

사송(賜送)은 왕이 신하에게 물건을 내려 보내는 일을 말한다. 이 문서의 수취자는 경기감사 정중휘로 발급자와 인장은 없지만 물품의 내용을 통해 임금이 내린 것임을 알 수 있다.²³⁾

4.2 疏·劄·啓·狀類

소(疏)와 차(劄)는 지방 유생이나 관리들이 임금에게 청원, 건의한 문서로, 형식에 따라 구분되어지는 것이며 계(啓)는 신하가 임금에게 글로 상주(上奏)하는 것을 계문(啓聞)이라 하고 그 서류를 계본(啓本)이라 하였는데 계문을 기초로 한 글을 계초(啓草)라 하였다. 장계는 관찰사와 병사 등 지방으로 파견된 관리가 자신이 관할구역 내의 일을 왕에게 직접 보고할 때 작성하는 문서이다. 소차계장류는 수량이 38건으로 전체수량의 약 3%을 점하고 있는데, 이 중 소지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유형별 세부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12> 疏·劄·啓·狀類의 現況

區分	種數	區分	種數
啓目	1	等狀	4
劄子	1	單子	1
所志	27	戶口單子	2
原情	1	計	38
白适	1		

계목(啓目)은 계문의 일종으로 각 부서에서 왕에게 올렸던 문서로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일을 재가 받을 때 사용하였다. 종택에는 1건이 전해지고 있는데 13대

22) 進仕 通德郎 鄭植을 權知承文院副正字로 임명, 進仕 通德郎 鄭重徽를 權知承文院副正字로 임명, 幼學 通仕郎 鄭萬教를 繕工監假監役官에 임명.

23)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賜給 臘藥一封 胡椒五升 弓子一張 長箭一部.

정이녕(1653-1677)의 양자로 동생인 정지녕의 셋째 아들인 정운희(鄭運熙)를 입양한다는 내용의 계목이다.

차자(劄子)는 간단한 형식의 상소문으로 종택에는 김판부사(金判府使)가 올린 1건이 있다.

소지는 백성이 관에 청원, 탄원, 진정할 일이 있을 때 제출했던 문서의 통칭이다. 그 내용은 산송, 효자·열녀에 대한 정려(旌閭)를 위한 것, 처벌 요청 등 다양하며, 당시 백성들의 일상사로서 민원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일차적 자료이다. 소지는 모두 27건이 전해지는데 17건이 노비가 관에 올린 문서이고, 5건이 정식, 정중회 등이 올린 문서들이다. 원정, 발괄, 등장 모두 소지의 일종이라 할 수 있는데, 원정이란 백성이 억울하거나 원통한 일을 국왕에게 진소(陳訴)하는 문서이다. 종택에는 1건이 전해지고 있는데 관에 제출하지 않고 초안으로 보관된 것이다. 발괄[白活]이란 원래 구두(口頭)로 탄원이나 청원하는 것을 가리켰는데 후에는 글로 된 탄원서나 청원서도 발괄이라 일컬었다. 등장(等狀)은 여러 사람이 연명(連名)하여 관에 올리는 소지로 4건이 전해지고 있다. 단자(單子)란 주로 사대부들이 직접 관에 탄원이나 청원할 때 사용한 문서이다. 종택에는 1건이 전해지고 있는데 별비면(別非面)에 사는 유원(柳瑗)이 전담 관련 분쟁으로 성주(城主)에게 올린 것이다.

호구단자는 호구대장(帳籍)을 3년마다 개수(改修)하기 위하여 각호에서 호구상황을 적어 3년에 한차례 제출하는 것으로 호주가 호구단자 2부를 작성하여 올리면 1부는 호주에게 돌려주고, 1부는 장적을 개수하는데 자료로 이용한 것이다. 종택에는 정중회가 올린 2건이 전해지는데 연대가 기록 되어있지 않지만, 호주의 연령을 참고한 결과 1690(숙종 16)년과 1693(숙종 19)년인 것으로 판단된다.

4.3 牒·關·通報類

첩·관·통보류(牒·關·通報類)는 주로 상급관아에서 동급, 하급관아, 개인

에게 내린 명령서와 하급관이나 개인이 상급관아 또는 상급자에게 올린 보고서로 크게 구분된다. 종택에는 고목과 해유이관 문서 등 총 6건이 가진되고 있다. 유형별 세부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13> 牒·關·通報類의 現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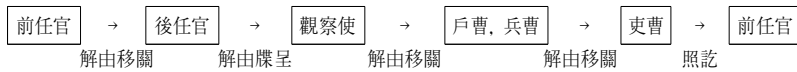
區分		種數
告目		2
解由文書	解由移關	3
關		1
計		6

고목(告目)은 각사(各司)의 서리(書吏) 및 향리(戶長) 등 하리(下吏)가 상관(上官)에게 공적인 일을 알리거나 문안(問安)할 때 올리는 간단한 문서이다. 종택에는 2건이 전해지고 있는데 기묘년에 신흥명(申鴻溟)이 올린 문서와 정진석(鄭進錫)에게 보내는 문서 등이다.

해유문서(解由文書)는 관직을 사임하거나 이동할 때의 사무(事務) 인수인계 문서이다.²⁴⁾ 관원이 교체될 때 전임자가 후임자에게 그 사무와 소관물품을 인계하고, 재직 중의 회계와 물품 관리에 따른 책임소재를 명확히 기록하였다. 종택에는 해유문서 관찰사에서 호조, 병조로 가는 해유이관 단계에 있는 문서 3건이 있다. 이중 2건은 정택조의 해유에 관련한 문서로 같은 날 호조와 병조에서 각각 이조로 발급된 것이다.

관(關)은 관부 상호간에 수수(授受)되는 관용문서(官用文書)로서 동등이하(同等以下)에 쓴다. 하급에서 상급으로 올리는 문서는 관을 쓸 수 없고 첩정(牒呈)을 쓴다. 관의 내용은 대개 두 관청간의 관련 있는 사무(事務)를 상고(相考)하여 시행하기 위한 것이다. 종택에는 1건이 전해지는데 함경도 명천도호부사

24) 해유문서(解由文書)의 절차를 도식화 해보면 다음과 같다. 崔承熙(1989), 212.



(咸鏡道明川都護府使)가 정효준의 덕 노비와 관련하여 양주목(楊洲牧)에 보낸 문서이다.

4.4 證憑類

증빙류(證憑類)는 수량이 52건으로 전체수량의 약 4%를 점하고 있는데, 이중 준호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유형별 세부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14> 證憑類의 現況

區分	種數	區分	種數
立案	2	准戶口	45
遺書	1	證明書	2
完議	2	計	52

입안(立案)은 관에서 발급하는 문서로서, 개인의 청원에 따라 어떤 사실(賣買, 讓渡, 決訟, 立後 등)을 확인하여 이를 인증(認證)해 주는 문서이다. 재산, 토지, 가옥, 노비나 그 밖의 재산의 매매, 양도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 대개 취득자(取得者)가 관에 입안을 신청하면, 관에서는 재주(財主)와 증인(證人), 필집(筆執) 또는 관계인(關係人)의 진술(陳述)을 받아 확인한 후 입안을 성급(成給)해 주었다. 종택에는 1470(성종 1)년 정씨 문중에 노비를 내린다는 입안과, 예조에서 정이녕의 계후(繼後)를 위하여 1677(숙종 3)년에 내린 입안 2건이 있다.

유서(遺書)는 유언(遺言)을 문서로 작성한 것이므로 사후(死後)의 가내(家內) 제반사(諸般事)의 처리에 관한 것이 그 내용을 이루고 있다. 대개 조선의 봉사(奉祀) 문제와 재산분배가 그 중심을 이루고 있어 분재문서(分財文書)의 성격을 갖는다. 유서는 부(父)가 자녀(子女)에게 남기는 문서로서 자필(自筆)로 작성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종택의 문서는 1509(중종 4)년 정미수의 처 이씨²⁵⁾가 남긴

25) 貞敬夫人全義李氏로 생몰년은 미상이다.

문서로서 정미수가 자필로 쓰고 있다.

완의(完議)는 종중(宗中), 가문(家門), 계(稷), 동중(洞中) 등에서 제사(祭祀), 묘위(墓位), 계사(稷事), 동중사(洞中事) 등에 관하여 의논(議論)하고 그 합의된 내용을 적어 그것을 서로 지키도록 약속하는 문서이다. 종택에는 정중만(鄭重萬), 정중태(鄭重泰), 정중기(鄭重基) 등 11세손의 장자들이 모여 종가(宗家)의 제사(祭祀)에 대해 상의(相議)한 문서 포함 2건이 있다.

증빙류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준호구(准戶口)는 모두 45건 이다. 준호구는 소송의 첨부자료나 노비소유(奴婢所有)의 증명자료로서, 혹은 가문(身分)유지의 자료로서, 관으로부터 장적(帳籍)에 준해서 등급받는 문서이며 오늘날의 주민등록등본과 호적등본의 성격을 함께 가진다. 시대와 지역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 경우는 있으나 호구단자와 내용상으로는 거의 비슷하고, 서식상으로는 연도표시로 간지(干支)를 기록한 것이 많은 호구단자(戶口單子)에 비해 연호(年號)를 철저히 사용하며 호주(戶主)와 호주처(戶主妻)의 사조(四祖) 및 가족상황을 호구단자와 같이 별행으로 쓰지 않고 연서(連書)하는 것이 다르다. 호구단자, 호구장적 등과 함께 당시의 사회사, 경제사 연구에 필요한 자료이다. 발급기관은 대체적으로 한성부(漢城府)와 양주목(楊洲牧)으로 나뉘는데 1666(현종 7)년 정중휘가 한성부에서 받은 준호구를 시작으로 1867(고종 4)년 정광로(鄭匡魯)가 양주목에서 발급받을 때까지 45건이 전해지다. 몇몇 자료는 현전하지 않지만 호구단자를 제출하는 3년을 기준으로 대부분 연속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다.

증명서라고 한 2건의 문서는 일제시대에 작성된 것으로 학력증명서(學力證明書)와 증여문서(贈與文書)등이 남아있다.

4.5 明文·文記類

명문·문기류(明文·文記類)의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 문서는 분재기(分財記)와 매매문기(賣買文記)로 종택에는 모두 98건으로 전체 수량의 약 7%를 차지하고 있다. 유형별 세부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15> 明文·文記類의 現況

區分		種數	區分		種數
分財記	分給文記	1	賣買文記	土地文記	20
	別給文記	33		奴婢文記	6
	許與文記	12	牌旨		14
	和會文記	12	計		98

분재기는 재산의 상속과 분집(分執)을 기록한 문서의 통칭으로 재산의 상속시기와 방법에 따라 분급문기(分給文記), 깃부문기(衿付文記), 별급문기(別給文記), 허여문기(許與文記), 화회문기(和會文記)등으로 세분할 수 있다.

분급문기는 재주가 살아있을 때 자녀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는 문서이다. 조선전기에는 균등분배(均等分配)에 속하나 후기에서는 장자 우대의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종택에는 1건이 있는데 정충경의 妻 민씨가 정종에게 발급한 것이다. 연호부분이 찢겨서 확실한 연대는 알 수 없지만 발급자와 수급자를 고려했을 때 15세기 문서로 판단된다.

분급내용을 자녀일인(子女一人)씩 衿(몹)을 별서(別書)해 주는 깃부문기는 보이지 않고 다양한 사유로 재산을 분급하는 형태인 별급문기(別給文記)가 상대적으로 많다. 별급문기는 일반적인 재산상속과는 구분되는 문서로 별급대상자의 범위가 넓고, 그 사유도 다양한 것이 특징이다. 과거급제, 생일, 혼례(婚禮), 병치료(病治療) 등 기념하거나 축하할만한 일이 있을 때 행하여진다. 가장 이른 시기의 문서로는 1468(세조 14)년 문종의 후궁이었던 홍씨(洪氏)가 경혜공주(敬惠公主)에게 발급한 문서와 1509(중종 4)년 정미수가 정승휴의 효행을 칭찬하며 내려준 문기 등 모두 33건이 전해지고 있다.

허여문기(許與文記)는 재산을 급여(給與)하는 문서이다. 허여문기는 직계존속(直系尊屬)에 의한 경우도 있으나 방계(傍系) 및 인척(姻戚)에 의한 경우도 많다. 이는 정식의 재산분배가 아니어서 후손(後孫)들에 의하여 분쟁의 가능성이 있기에 관의 입안을 받았다. 종택에도 이러한 점련문서 형태의 허여문기들이 다수 보이고 있다. 1473(성종 4)년 경혜공주가 정미수에게 가옥과 토지를 허여하고 있는 문기가

가장 이른 시기의 것이고, 세종의 8남인 영웅대군(永膺大君)²⁶⁾의 처 정씨가 조카인 정미수에게 내린 3건의 허여문기를 포함한 모두 12건이 전해지고 있다.

화회문기(和會文記)는 분재기류 가운데 중요한 문서인데, 노비, 토지등의 재산은 재주(財主) 생전에 재주의 의사(意思)에 의하여 분재되는 경우도 적지 않으나, 재주 생전(生前)에 분재의 지정(指定)이 없었던 경우에는 사후(死後) 자녀들의 화회(和會)에 의하여 분집(分執)된다. 재주의 유서(遺書)가 있으면 그에 따르면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형제자매(兄弟姊妹)가 모여서 화합(和合) 한 가운데 분급을 하게 된다. 대체로 재주 사후 삼년상(三年喪)을 마친 후에 작성되며 부모 생전에 분급하고 남은 재산 도는 화회분집(和會分執)한 후에 나타난 재산도 다시 문기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다. 1607(선조 40)년 9대 흠(欽)의 형제들이 화회하여 작성된 문기와 정흠의 처 평산 신씨(平山 申氏)의 화회문기 작성 시 사위의 자격으로 분급 받은 것을 포함하여 총 12건이 전해진다.

매매문기(賣買文記)는 오늘날의 매매계약서와 같은 문서로 매매대상에 따라 토지, 가옥, 노비, 자매(自賣), 산, 선척(船隻), 초장(草場), 어장(漁場)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조선 초기에 있어서 토지와 가사의 매매는 모두 매매계약이 있는지 100일 내에 관에 고(告)하여 입안²⁷⁾을 받도록 하였다. 이러한 소지와 진술서등은 점련되어 전해지고 있다.

토지문기는 거래년, 월, 일을 적고, 당사자인 매도인과 매수인, 증인, 필집의 참석하에 매도사유, 매도물(田畓)의 소재, 면적, 가격 등을 기재하게 된다. 양반가에서 토지를 매매할 경우 노비의 명의로 매도, 매수하게 되는데 양반은 매물이

26) 영웅대군(永膺大君) 이엄(李璫)은 세종대왕과 소헌왕후 심씨의 제8남이다. 1434(세종 16)년에 태어나 1467(세조 13)년에 별세했다. 시호는 경효(敬孝)이다. 부인은 춘성부부인(春城府夫人) 해주정씨로 이조판서 증 좌의정 충경(忠敬)의 딸, 대방부부인(帶方府夫人) 여산송씨의 딸, 그리고 연성부부인(延城府夫人) 연안김씨의 딸이다. 해주정씨의 소생은 없었고, 여산송씨는 1녀를 낳았다. 민족문화대백과사전, [cited 2008.11.01] <<http://www.encykorea.com/>>

27) 매수인이 입안을 신청하는 소지를 관에 제출하면 관에서는 입안발급결정에 대한 계움을 첨부하고 매도인, 증인, 필집으로 부터 매매사실을 확인하는 진술을 받은 후에 입안을 발급하게 된다.

있어도 직접 관계하지 않고 집안의 노비에게 패지(牌旨)²⁸⁾를 주어 형식상 매도하는 일을 위임한다. 가장 이른시기인 1548(명종 3)년에 강씨(姜氏)가 정원희(鄭元熙)에게 작성하여 준 것이고, 함양군수(咸陽郡守) 남이성(南以聖)이 1628(인조 6)년에 정효준에게 작성한 토지문기를 포함한 20건이 전해지고 있다.

노비문기(奴婢文記)는 노비의 매매, 양도, 상환 등에 관한 문서로서 토지나 가옥의 경우와 같이 관의 입안을 받아야 했고 입안 절차는 비슷하였다. 또한 양반은 매매에 직접 관계하지 않고 양반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노(奴)에 의하여 대행(代行)되고 있다. 종택에는 김광헌(金光憲) 처 한씨와 정원희 처 김씨와의 노비매매문기를 비롯한 6건이 있다.

패지를 받은 노비는 원매인(願買人)을 찾아 매매계약서(文記)를 작성하여 패지와 함께 인도(引渡)하고 매물가(賣物價)를 인수(引受)하여 상전에게 드리게 된다. 종택에는 총 14건의 패지가 있는데 대부분 정중휘로부터 받은 것이다.

4.6 書簡 · 通告類

해주정씨 종택 고문서의 가장 많은 수량을 차지하고 있는 서간 통고류(書簡 · 通告類)는 806건으로 전체 수량의 약 54%를 차지하고 있는데, 주로 간찰과 위장, 통고, 통문, 혼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형별 세부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16> 書簡 · 通告類의 現況

區分	種數	區分	種數
簡札	794	通文	11
婚書	1	計	806

흔히 편지라고 부르는 서장(書狀), 간찰(簡札)은 인간사(人間事)의 모든 내용이 담긴 문서이다. 간단한 안부편지로부터 학문의 토론에 이르기 까지 그 내용은

28) 패자(牌子)와 동의어이다.

다양한 것이며, 바로 그 시대사를 조망할 수 있는 생생한 자료이기도 하다. 종택의 간찰은 모두 794건이 전해지는데 집안의 경조사(慶弔事), 친구, 사제간의 학문문답, 현실문제, 문안 등의 자료가 들어있다.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으나 대체적으로 17~18세기 자료가 주를 이루고 있다.

혼서(婚書)는 혼인때에 신랑집에서 예단을 붙여 신부집으로 보내는 서간을 말하는 것이나 청혼서(請婚書), 허혼서(許婚書), 혼인택일지(婚姻擇日紙) 등 서로 오가는 서장을 통칭해서 혼서라 한다. 종택에는 일제시기인 1911년에 작성된 정기석의 혼서 1건이 있다.

통문(通文)은 서원, 향교, 향청, 문중, 유생, 결사 등에서 동류의 관계기관·관계인원 등에게 공동의 관계사를 통지·통고하는 문서이다. 종계의 모임과 족보간행을 위한 참여 등 11건의 통문이 전해내려 오고 있다. 목활자로 간인한 통문 1건도 있었는데 해주정씨족보소(海州鄭氏族譜所)에서 18세손 이하의 향렬자를 인쇄한 것이다.

4.7 置簿·記錄類

치부·기록류(置簿·記錄類)에는 금전이나 물품 따위가 들어오고 나감을 기록한 치부류와 각종 기록류를 합친 유형으로 추수기(秋收記), 장례택일지(葬禮擇日紙), 혼수기(婚需記), 사주평(四柱評), 조객록(弔客錄), 홀기(笏記), 물목(物目) 등의 문서가 있다. 종택에는 모두 35건으로 전체 수량의 약 2%를 차지하고 있다. 유형별 세부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17> 置簿·記錄類의 現況

區分	種數	區分	種數
秋收記	4	墓誌	1
葬禮擇日紙	7	物目	2
四柱評	9	書冊目錄	3
弔客錄	1	柱聯	6
笏記	2	計	35

추수기(秋收記)는 추수를 하는 작인의 이름, 땅의 면적, 곡식의 종류, 수량을 기록한 장부이다. 모두 4건이 있고 전답의 결수(結數)와 작인의 수확량을 기록하고 있다.

장례택일지(葬禮擇日紙)는 지관(地官)이 장례날짜와 시간을 선택하고서 작성해준 문서로 장례시 피하거나 유의해야할 사항도 적어주었다. 장례일시는 망자와 상주의 사주 및 입장(入葬)할 곳의 산세등을 살펴 결정하였다. 모두 7건이 전해지고 있다.

사주평(四柱評)은 사람이 태어난 해(年)·달(月)·날(日)·시(時)를 간지(干支)로 계산하여 나타난 길흉화복(吉凶禍福)에 대한 평(評)을 적어 놓은 문서로 종택에는 9건이 전해진다. 정학근(鄭學根), 정도근(鄭道根), 정화섭(鄭華燮) 등의 인물로 보아 연대는 일제시기로 보인다.

조객록(弔客錄)은 1건이 있는데 하단에 부의(賻儀)가 같이 기록되어 있다. 상주가 누구인지 알 수 없으나, 수록 내용으로 보아 기해(己亥)²⁹⁾년인 1899년에 기록된 문서이다.

홀기(笏記)는 혼례나 제례 때 의식의 순서를 적은 글로써 특정한 의례의 절차를 순서대로 적어 손에 들고 쉽게 참조하기 좋도록 한 문서이다. 홀기는 또한 그 절차에 참석하 많은 사람들에게 크게 소리 내어 읽어 주므로 해서 그 절차대로 따라서 행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도 이용된다. 종택에는 2건이 현전하고 있다.

묘지(墓誌)란 죽은 사람의 행적(行蹟), 자손(子孫)의 이름, 묘지의 이름, 나고 죽은 때 등(等)을 기록(記錄)한 글을 말한다. 종택에는 해흥군 정중휘에 대해 기록한 문서 1건이 있다.

물목(物目)은 관할 지역 관리가 상급기관에 올린 물품 혹은 혼수시에 필요한 물품을 기록한 문서를 말하는 것으로 종택에는 백청(白淸)(빛깔이 희고 품질이 좋은 꿀), 상포(常布)(좋지않은 베), 중포(中布)(국궁에서 쓰는 파넛), 남초(南草)(담배)등을 기록한 문서 2건이 전해지고 있다.

29) 族叔인 鄭安教(1859-1913), 鄭哲教(1864-1927)의 기록으로 보아 1899년의 己亥로 판단된다.

서책목록(書冊目錄)은 장서목록이라 할 수 있는데 소장하고 있는 서책의 이름과 종수 등을 기록한 것이다. 앞서 필사본에서 설명한 목록과는 또 다른 형태의 목록으로 병득(丙得), 사책치부(私冊置簿), 가장부기(家藏簿記) 등 모두 3건이다. 내용은 병득 20종, 가장부기 114종, 사책치부 24종의 서명이 기록되어 있고, 연대와 저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가진된 고문헌을 연구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문서이다. 특히 가장부기(家藏簿記)³⁰⁾는 서명 위에 책의 이동상황을 보여주는 표시가 보이고, 전체 책 수와 잃어버린 책 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단정할 수는 없지만 책을 관리하는 표시인 '수사(受賜)', '신(新)', '[旧]' 등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 3건의 목록을 서로 비교한 결과 서명이 같은 경우는 「운회(韻會)」 1종을 찾을 수 있었다. 하지만 전체 책수가 달라 서로 다른 형태의 책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3건의 목록은 서로 다른 시기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주련(柱聯)은 기둥이나 벽에 세로로 써 붙이는 글씨로 기둥[柱] 마다 시구를 연(聯)하여 걸었다는 뜻에서 그렇게 부른다. 대자(大字)로 쓴 주련 4건³¹⁾과 여러 개를 묶어서 엮은 2건이 전해진다.

30) 가장전적을 수록한 간략목록의 일종으로 〈朱子語類, 宋名臣言行錄, 綱目, 宋元綱目, 通鑑, 宋鑑, 名世文宗, 心經, 近思錄, 龍飛御天歌, 國朝寶鑑, 家禮, 小學, 小學諺解, 古文眞寶, 桂苑筆耕, 伊洛淵源, 韻會, 列聖御製, 二養編, 觀象玩占, 書傳, 諺解, 周易諺解, 詩傳諺解, 中庸, 大學, 論語, 馬史, 書傳大文, 孟子大文, 朴通事諺解, 儀節家禮, 議禮圖, 心經發揮, 朱子封事, 法言, 海東地誌, 文章範, 論語大文, 敬民編, 東閣雜記, 山堂肆考, 史記評林, 資治綱目, 三略, 尉繚子, 醫學入門, 醫學正傳, 醫林撮要, 東醫寶鑑, 直指方, 萬病回春, 攷事撮要, 東國通鑑, 南華經, 古文百選, 篆文, 小說, 崔氏世譜, 柳淵傳, 讀書錄, 初學訓, 孝經, 李白大全, 東坡大全, 唐詩鼓吹, 濂洛風雅, 詩學指南, 皇明五大家文抄, 翦燈新話, 左傳, 庸學大全, 庸學解, 長律, 排律韻編, 坡律, 觀時錄, 決訟類聚, 東史補遺, 白香山集, 退溪集, 李相集, 愚伏集, 西厓集, 東岡集, 漢陰集, 濯纓集, 水色集, 漫浪集, 白洲集, 石洲集, [逢]川集, 澤堂集, 白沙集, 花潭集, 月蓬集, 晚翠集, 體素集, 一松集, 靖節集, 西壩集, 疎菴集, 李評事集, 六臣遺稿, 南窓遺稿, 河陰遺稿, 西岳書院志, 圃隱集, 國朝詩刪, 明史纂要, 諸家抄, 虞註杜律, 老乞大諺解, 謾錄〉 등 전적의 목록이 수록되어 중택 고전적의 비교 연구에 주목되는 자료이다.

31) '春風浩蕩吹新雨', '人誰敢侮修身坐', '花片徘徊戀奮枝', '天不能窮力穡家' 등 4건이다.

4.8 詩文類

시문류(詩文類)에는 문학적 성격을 띠는 다양한 형태의 문장으로서 초고로 작성한 내용과 과거(科擧)에 쓰인 시권(試券), 죽은 사람을 추도하며 지은 제문(祭文), 시문(詩文) 등이 있다. 종택에는 모두 157건으로 전체 수량의 약 11%를 차지하고 있다. 유형별 세부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18> 詩文類의 現況

區分	種數	區分	種數
講書採點紙	1	祝文	1
試券	52	進香文	1
祭文	61	行狀	3
詩	35	碑文	1
序	2	計	157

강서채점지(講書採點紙)는 과거 응시자에게 사서삼경에 대한 지식을 구두(口頭)로 시험하고 그 결과를 기록한 문서이다. 문과(文科) 복시(覆試) 초장(初場)에서 이 ‘강서(講書)’ 시험을 실시하였으며 7명의 채점관이 각자 채점한 후 이를 수합하여 성적을 매겼다.³²⁾ 종택에는 진사 정중휘가 27세때 응시하여 10분 반(十分半)을 얻어 합격한 강서채점지 1건이 전해진다.

시권(試券)은 문무과나 백일장 등에 응시한 사람들이 작성한 답안지를 말하는 데 과지(科紙)라고도 칭해진다. 과거 응시자는 과지를 시전(市廛)에서 구입하여 자신의 인적사항(신분·성명·나이·본실·거주지·사대조 등)을 적은 명지(名紙)를 예조나 성균관에 제출하는데 관에서는 사실 여부를 조사한 후 채점 후에 명지와 답안지를 종이실로 묶어 돌려주게 된다.

명지를 작성하는 방법에는 2가지가 있는데, 시권의 우측상단에 쓰는 경우는 명지를 잘라내어 따로 보관하였고, 우측하단에 쓰는 경우는 세로로 자른 후 말아

32) 전북대학교박물관, 『박물관 도록-고문서 (전북: 전북대학교박물관, 1998), 290.

올려 봉(封)하였다. 본문 없이 명지만 있는 문서는 22건이 있는데 1641(인조 19)년 정식이 쓴 것이 가장 이른 시기이다. 정식이 6건으로 가장 많았고, 정중휘 5건, 정지녕 5건, 정운희 3건 등의 순서를 보이고 있다. 우측 하단에 명지를 쓰고 말아올려 봉한 형태는 21건이 있으며 2건을 제외한 20건이 정기석이 쓴 것이다. 종택에는 이를 포함하여 모두 52건이 있다.

시문류에서 가장 많은 수량을 차지하고 있는 제문(祭文)은 죽은 사람에 대하여 애도의 뜻을 나타내는 글이다. 정공(鄭公), 정미수, 정효준등 정씨 문중에 올린 문서와 풍산김씨, 전주이씨등 다른 문중으로 올린 문서로 모두 61건이 전해지고 있다.

이 밖에 5언율시와 7언율시로 구성된 시문(詩文)과 서문(序文), 축문(祝文), 진향문(進香文),³³⁾ 행장(行狀), 비문(碑文) 등이 있다.

4.9 其他

기타(其他)에는 위의 8가지 유형에 넣기 모호한 문서들로서 탁본, 잠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형별 세부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19> 詩文類의 現況

區分	種數	區分	種數
碑文 草本	1	皮封	13
拓本	12	計	70
雜文	44		

비문 초본(草本)은 비석(碑石)에 새길 비문의 초본(草本)을 한 글자씩 각각 잘라놓은 것으로 105개의 글자가 있다.³⁴⁾ 하지만 완전한 문서의 형태가 아니므로

33) 진향(進香)은 왕이나 왕세자 또는 그 배우자가 죽었을 때 종척(宗戚)이 빈전(殯殿) 또는 빈궁(殯宮)에 향을 올리며 제사를 올리는 일을 말하며, 진향문은 진향할 때 지어 올리는 글을 말한다.

1건으로 처리한다. 잡문(雜文)은 고문의 일부를 필사하거나, 관독이 불가능한 것들을 모아놓은 것으로 모두 44건이다.

기타에는 대부분 해주정씨의 비문이 담긴 탁본(拓本) 12건과, 문서와 떨어져 피봉(皮封)만 남겨진 13건을 포함하여 모두 70건으로 전체수량의 5%에 해당된다.

5. 結 論

이 연구는 해주정씨 종택에 현존하고 있는 고문헌을 대상으로 각각의 현황과 특징을 고찰해 보았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첫째, 남양주 해주정씨 종택에 현존하는 고문헌의 전체적인 현황은 고전적 295종 457책과 고문서 1,461건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고전적의 관종별 현황 분석은 간인본과 필사본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간인본은 목판본 54종, 석인본 19종, 신연활자본 7종, 금속활자본 4종, 목활자본 2종, 탁본 2종 순위를 보이고 있는데, 목판본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필사본에서는 207종으로 고전적의 71%를 차지하고 있었고, 시와 부를 필사한 책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셋째, 고전적의 주제별 현황 분석에서는 집부 152종, 사부 72종, 자부 40종, 경부 30종 등의 순위로 집계되었는데, 이 중 집부 전적이 가장 많은 종수를 차지하고 있다. 경부는 사서류와 소학류, 사부는 전기류와 보계류, 자부는 천문·산법류와 유서류, 집부는 총집류에 집중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넷째, 고문서는 9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서간·통고류 806(54%)건, 교령류 199건(14%), 시문류 157건(11%), 명문·문기류 98건(7%), 기타 70건(5%), 증빙류 52건(4%), 소·차·계·장류 38건(3%), 치부·기록류 35건(2%),

34) 정중희의 妻 同福吳氏와 정이녕의 妻 淸州慶氏, 정운희의 妻 宜峯南氏 등 모두 6인의 비명(碑銘)으로 추정된다.

첩·관·통보류(0%) 6건으로, 전체적으로 서간·통고류가 주종을 이루고 있었다.

다섯째, 교령류에서는 고신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고, 인물별로는 정중휘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소·차·계·장류에서는 소지 유형과 노비가 올린 문서가 많다. 첩·관·통보류에서는 해유문서가 많았는데 2건이 정택조와 관련된 내용이었다. 증빙류에서는 준호구가 가장 많고 3년을 기점으로 대부분 연속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다. 명문·문기류에서는 분재기와 매매문기가 많은데 그중 별급문기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서간·통고류에서는 간찰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집안의 경조사 혹은 안부편지가 주를 이루고 있었다. 치부·기록류에서는 사주평이 가장 많았으나, 서책목록이 가진 것은 매우 주목할 만한 자료이다. 시문류에서는 제문과 시권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었는데 정식이 6건으로 가장 많다.

여섯째, 고전적을 누가 언제 수집하였는지는 명확히 드러나지 않지만 고문서의 경우 정식, 정중휘, 정운희등의 자료가 가장 많이 남은 것으로 보아 대체적으로 17세기에서 18세기초에 자료가 집중적으로 수집이 된 것으로 보인다.

해주정씨 종택의 고문헌은 특정 한사람에 의해 모아진 것이 아니라 대를 이어 학문에 전념한 선조들에 의해 집서되어 현재까지 전래되고 있다. 비록 전적류에는 그다지 주목할 만한 자료가 보이지 않고 있으나, 고문서류는 해주정씨 가문을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집안에 전해오는 고문헌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보존해야 할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1. 單行本

강순애. 「고문헌의 조직과 정보활용」. 서울 : 아세아문화사, 2006.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역사자료총서 - 고문서」. 국립중앙박물관

관, 2004.

이수건. 16세기 한국고문서연구. 서울 : 아카넷, 2004.

윤병태. 韓國古文書整理法研究. 城南 :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94.

진북대학교박물관. 「박물관 도록-고문서 . 진북 : 진북대학교박물관, 1998.

정채번. 海州鄭氏大同譜 . 서울 : 海州鄭氏大同譜編纂委員會, 1985.

중앙대학교 한국문화유산연구소. 2006년 경기도 일반동산문화재 다량소장처 실태조사 보고서. 대전 : 문화재청, 2006.

천혜봉. 古書分類目錄法 . 서울 : 韓國圖書館協會, 1970.

_____. 「한국금속활자본」. 서울 : 범우사, 1993.

_____. 「한국 서지학」. 서울 : 민음사, 2006.

崔承熙. 韓國古文書研究 . 서울 : 지식산업사, 1989.

한국고문서학회. 2003년도 고문서 정리 표준화안 연구결과보고서 . 서울 : 한국고문서학회, 2003.

韓國精神文化研究院. 古文書集成 . 城南 : 韓國精神文化研究院, 2002.

허홍식. 한국의 古文書. 서울 : 민음사, 1988.

화성시. 들목조씨 소장 고문서. 화성 : 화성시, 2006.

2. 論文

남권희, 옥영정. “古文書로 살펴본 조선시대의 기록문화(I) - 남재문고 소장 고문서자료의 유형과 특징.” 社會科學, 第15輯(2003). 23-66.

노기춘. “長興 梧川精舍의 藏書考.” 「호남문화연구」, 第29輯(2001). 5-69.

宋日基, 盧基春. “海南 綠雨堂 所藏 典籍의 考察.” 「호남문화연구」, 第31輯(2002). 1-33.

安承俊. “韓國學中央研究院의 古文書 調査·整理 現況과 課題.” 古文書研究, 第31호(2007). 73-106.

양진석.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고문서 조사 정리의 현황과 과제.” 영남학 제9호(2006). 77-107.

- 玉泳晷. “咸陽朴氏 家傳 古文獻의 내용과 資料의 特性.” 書誌學研究 第19輯 (2000). 255-285.
- 李春熙. “門中文庫에 대하여-특히 壽峰精舍·映奎軒 兩文庫를 中心으로.” 『한 국비블리아』 第2輯(1974) 88-101.
- 이해준. “고문서 분류체계 시안.” 古文書研究』 第22號(2003). 79-111.
- 이해준. “명재 尹拯家의 古文書와 典籍.” 『유학연구 제12집(2005). 89-101.
- 전경목. “고문서의 조사와 정리 방법론.” 『영남학』 제9호(2006). 39-75.
- 정구복. “한국고문서의 특징 -명칭문제를 중심으로.” 古文書研究』 第22號 (2003). 1-24.
- 정구복. “古文書 용어풀이.” 『古文書研究』 第22號(2003). 297-300.
- 鄭求福. “朝鮮朝의 告身(辭令狀) 檢討.” 古文書研究 第9·10號(1996). 53-65.
- 정왕근. “法眼 金敏榮 藏書의 構成과 性格.” 書誌學報 第31號(2007). 301-325.
- 조계영. “문중의 고문헌 관리와 보존-晉州 晉陽河氏 丹池宗宅 사례를 중심으로.” 『古文書研究』 第27號(2005). 145-172.
- 천혜봉. “국가지정 고문서와 문화재 정책.” 古文書研究 第19號(2001) 13-34.

3. 學位論文

- 金東旭. “冲齋 遺物觀 藏書 研究.”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1992.
- 朴贊植. “翠菴文庫 古文獻의 書誌的 分析.”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대학원. 2006.
- 林英蘭. “明齋 尹拯家 所藏 門中文庫의 典籍에 관한 書誌的 研究.” 석사학위논문. 한성대학교 대학원. 2005.

4. Web

- 서울대학교 규장각 해제. [2008.11.01] <<http://e-kyujanggak.snu.ac.kr>>
-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2008.11.01] <<http://www.koreanhistory.or.kr/>>
- 민족문화대백과사전. [2008.11.01] <<http://www.encykorea.com/>>

